교황 말·말·말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합니다.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연설 중)

가난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가난한 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가난한 자를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14일 오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주교들과의 만남 중)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 장벽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15일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대회 중)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진정한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진정한 만남을 이끌어 냅니다. (17일 충남 서산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 중)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습니다.
(17일 오후 충남 서산 해미읍성에서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강론 중)

위안부 할머니의 선물 '나비 배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던 중 한 할머니로부터 나비 배지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죄지은 형제 남김없이 용서하라"

교황, 명동성당 미사 통해 한반도 평화 기원…위안부 할머니들에 허리 숙여 눈높이 대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남긴 메시지는 '평화'와 '화해', '용서'였다.

교황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오늘 미사는 한 가정(남북)을 이루는 한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며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문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종교지도자, 새터민,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가 공동집전했다.

교황은 미사에 앞서 맨 앞줄에 앉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허리를 굽히고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복동(89) 할머니가 교황에게 나비 모양의 배지를 건네자 교황은 그 자리에서 배지를 제의에 달았다. 이어 교황은 바로 뒷줄에 앉은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밀양 주민, 용산참사 유족, 장애인들과도 인사한 뒤 제단에 올랐다.

이날 미사 독서(미사 도중 성경내용을 낭독하는 것)는 한국 천주교회가 매년 6·25나 그 직전 주일에 바치는 '남북통일 기원미사' 기도문과 독서에 따라 봉헌 됐다. 참석자들은 한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련에 비추어 묵상했다.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는 오늘 미사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한민족이 60년 이상 겪어온 분열과 갈등의 체험에 비춰보게 된다"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고, 화해시키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여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모든 영역에서 화해 메시지를 증언하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죄 지은 형제들을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며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냐'고 베드로가 묻자,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화해와 평화에 관한 예수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하느님의 강복 속에서 기뻐하는 날이 오기까지, 한국 신자들이 새날의 새벽을 준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강론을 마쳤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교황이 미사를 마친 뒤 자신이 앉은 자리로 찾아오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 전달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직접 박 대통령에게 기념 메달과 묵주를 선물로 전달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한국인에 전하고 싶은 말은 '사랑'

공식 연설·미사 강론에 166회 등장…최다 사용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 방한 도중 공식석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는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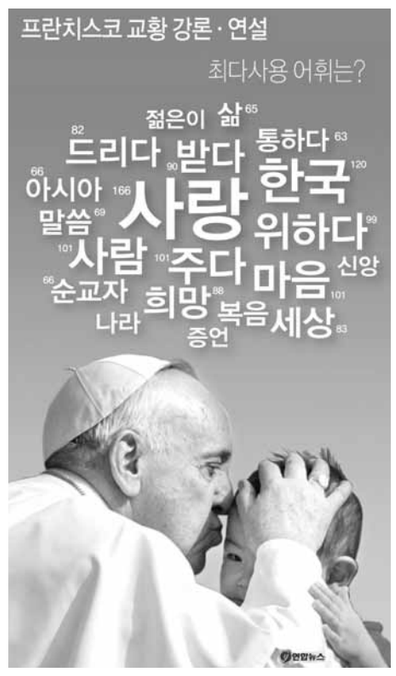
18일 연합뉴스 미디어랩(뉴미디어 연구팀)이 교황의 방한 기간 이뤄진 12번의 공식 연설과 미사 강론 내용을 대상으로 사용된 낱말을 분석한 결과, 대상이 된 총 8518개의 낱말 가운데 '사랑'이 166회로 가장 많이 쓰였다.

'사랑'에 이어 '한국'은 120회, '마음'과 '사람', '주다'는 각각 101회로 그 뒤를 이었다.

50회 이상 사용된 어휘들은 '위하다'(99), '받다'(90), '희망'(88), '세상'(83), '드리다'(82), '말씀'(69), '복음'(66), '순교자'(66), '아시아'(66), '삶'(65), '통하다'(63), '나라'(59), '신앙'(54), '증언'(54), '젊은이'(52) 등 순이다.

이는 교황이 방한 도중 가톨릭 교계와 한국 사회에 전달하려 한 메시지와 그 강조점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황이 전한 한민족 내부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계층간 화해와 정의,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정신은 '사랑'이다.

또 '아시아', '젊은이'에 이어 24회 사용된 '청년'에서 교황이 가진 젊은이들과 소통 의지가 엿보인다. 교황은 15일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행사가 열린 솔뫼성지를 찾은 데 이어 다시 17일 폐막 미사를 집전하는 등 닷새의 방한 기간 이틀이나 청년대회에 동참했다.

교황은 이외에 '가난'(40회)과 '공동체'(40회), '자비'(22회), '화해'(21회) 등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대립·갈등의 치유를 염원했다.

/연합뉴스